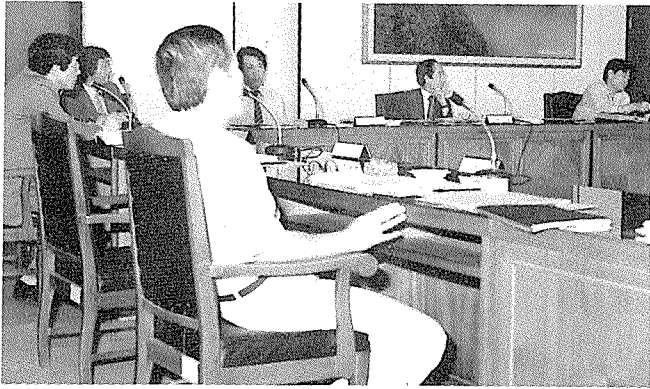


제 6 회 理事會 開催



6월 23일 오전 10시 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安箕泰會長 主率로 제 6 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事務處長의 主要業務報告에 이은 附議事項에서는 안산분소 설치를 일단 유보토록 하였고 직제 및 사무분장개정(안), 직원승진 임용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불허가 처분된 도서신고분의 실적회비반납 승인건은 7월 1일 부터 시행기로 승인하였다. 건축사연금 운영관리방법승인 건은 운영관리는 보험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되 규정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총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여부와 보험회사 선정을 위한 자료 및 계약서(안) 작성등 실무적

인 사항을 副會長을 포함한 연금공동관리위원이 조사, 검토하여 다음 理事會에서 제출 심의기로 하였다. 協議事項에서 특별전형 시험제도개선건의(안)은 우선 자료로서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의 특별전형 특혜제도를 폐지토록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토록 하였다. 建議事項에서 黃在孝理事는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혹한 행정처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단독주택에 있어 옥외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옥외계단을 설치했을 때도 단독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장했다.

安會長, 李圭孝長官 禮訪

(韓國의 建築)발간에 큰 관심表明

본회 安箕泰 회장과 金基壽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건설부를 예방하고 李圭孝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업무보고를 겸한 자리에서 安회장은 본회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집대성하게 될 "한국의 건축" 발간에 따른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李圭孝 장관은 본회가 발간하는 "한국의 건축"에 큰 관심을 표하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축보구실을 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어 줄 것과 특히 해방이후 건축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발행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세심한 배려와 뛰어난 기획으로 추진토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에따른 협조를 약속했다. 본회 任仁熾 사무처장을 비롯 徐炳基 주택국장과 裴宗明 건축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는 또 오는 88년 11월에 본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제3차 서울대회(ARCASIA)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李장관은 이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축관련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카시아대회는 내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본대회를

비롯해서 건축학생잼버리와 건축설계작품전 및 건축자재전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동시에 개최된다. 그밖에 李장관은 이날 安회장과 의 면담에서 건축사계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繫留事案 終決

— 本協會主張 貫徹돼 —

지난 85년 9월 내무부당국의 발의로 제기된 본회 윤리규약 제5조 및 9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로 당국에 의해 동 규약을 폐지할 것을 종용받게 됨에 따라 건축사설계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 사안은 협회창립 이래 가장 큰 시련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건축설계의 창작성 내지 예술성자체가 단순히 행정적 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시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적시하고 협회의

명분을 걸고 적극대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협회는 당국의 견해에 대한 부당성 및 이의제기를 위해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수심차례의 회합, 등 20여개월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지난 4월 본회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 사안의 종결로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건축사업무가 지속될 수도 있도록 되었으며 문제가 되었던 윤리규약에 대한 수정보완이 되었다.

재산세등 환불청구소송 승소

— 大法院에서 公法人으로 認定 —

본협회는 그동안 특별법인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축사의 품위보존, 권익옹호, 업무개선 이외에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발전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편의 위주로 제정된 세법에 의해 협회, 조합등은 비영리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시켜 재산세등을 부담하는 등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고 있었으므로 권리회복을 위하여 지난 85년도에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협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므로 환불을 행정당국(구청, 시청, 내무부)에 요구하였으나 기각당하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본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일 뿐 공익성이 없으므로 재산세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1년만에 대법원에서 기각판결됨으로써 승소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본협회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등 17,837,110원의 환불과 매년 7,800,000원의 면세혜택을 받게 됨은 물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支部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서울지부) 회원친목골프대회

회원친목골프대회

서울특별지부는 지난달 26일 '87회원취미별 단합대회 행사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 오산 소재 프라자칸트리 클럽에서 친목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俞지부장의 시구로 시작된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김철홍(조흥청백건축사사무소)회

원이 우승을 차지 했으며, 준우승에는 홍정길(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사)회원, 3위에는 김상규(무에서로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 메달리스트에는 이종완(서울건축사사무소)회원이 각각 차지하여 동료의 축하를 받았으며,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했다.



(서울지부) 회원친목바둑대회

회원친목바둑대회

서울특별지부부는 지난 7월 10일 회원친목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협회 회관 4층에 대회장을 마련하고 바둑애호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단체전(토너먼트전)에서는 영등포분소가 우승을 차지 했으며, 준우승에는 동대문 분소, 3위에는 북부분소가 각각 입상을 했다.

大邱直轄市支部

지부장 黃鏞周

建築士補 特別精神教育 實施

대구직할시지부는 지난달 11일 지부산하에 있는 건축사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사회관 5층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지부에 소속된 건축사보129명이 참석하여 지부장의 지부소개와 정신교육에 이어 김영창 대구직할시 건설국건축과장 및 이준호 행정계장으로부터 건축사보의 자질향상 및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조의 내용과 함께 업무수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에 많은 보탬이 됐다.

모내기지원으로 일손도와 대구직할시지부는 지난달17일 동구 미대동 소재의 논에서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회원 및 직원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3천여평의 논에 모를 심어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었다.



(대구직할시지부) 건축사보특별정신교육

京畿道支部

지부장 趙相鎬

建築士補 職務教育

경기도지부는 건축행정 건설화의 일환으로 28일간(5.13~6.24)에 걸쳐 지부에 소속중인 건축사보 544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각시군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수원시청 회의실의 각시군

회의실 및 분소회의실에서 각각 나누어 실시한 직무 교육에서는 건전한 건축행정풍토조성 및 정화의식고취, 건축관계법규숙지등 실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忠清南道支部

지부장 康祐植

建築士補 教育

충청남도지부는 지난달 3일 도 주관으로 도청 대강당에서 지부에 소속중인 건축사보에 대한 교육을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축사보 210명이 참석하여

“‘87년주택건설종합계획”, “건축사업무 및 처리지침”, “건축분야 에너지소비절약”, “건축법령 및 질의회신내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폭을 넓혔다.

모범사무소 도지사표창받아

충청남도지부는 지난달 1일 도지사로부터 모범사무소에 대한 표창을 받았다.

건축행정진실화에 따른 사무소 실태점검시

박윤용(종합건축사사무소 정원건축)회원과

권운근(건축사사무소

재일)회원이 모범사무소로 선정되어 각각 표창을 받았다.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金仁模

농촌일손돕기 벌여

전라남도지부는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보리베기를 실시하였다. 회원 및

사무소직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주군 서면 학구리 소재 900여평의 밭에 보리베기 일손을 털어 뜻있는 하루를 보냈다.

(전남지부)농촌일손돕기



慶尙北道支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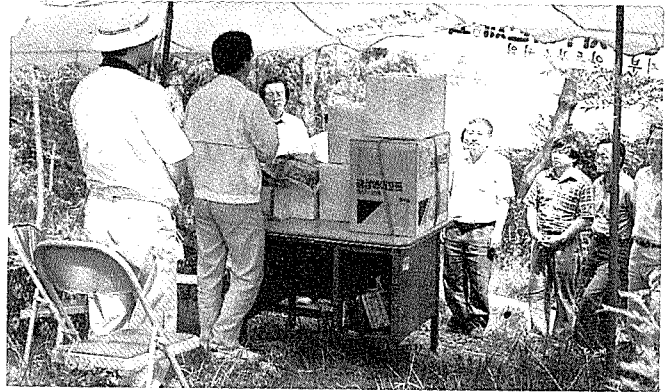
지부장 金永吉

회원친목 뉘시대회

경상북도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박2일간에 걸쳐 안동군 풍산읍 만운지에서 뉘시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23명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김천분소

김영철(현대건축사사무소)회원이 대어상을 차지하여 동료의 축하를 받았으며, 회원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건축사의 품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정착에 노력하자는데, 회원업무개선 및 지부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다짐했다.



(경북지부)회원친목뉘시대회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亨哲

建築士補 및 補助員 特別教育 實施

제주도지부는 지난 5월27일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3시간에 걸친 건축사보 및 보조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부장의 정신희화로 시작된 이날 교육은 총 133명의 건축사보 및 보조원, 지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 김호성 도시과장의 “건축행정”에 대한 교육에 이어 현화진 제주도교육원장의 교양특강과 함께 강요준 전임지부장 및 김석윤 지부간사의 “설계도면작성”, “공사감리”등 실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지부)건축사 및 보조원특별교육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멈추더니 엄청난 수마가 되었다. 일년에 한번쯤 격어야 할 일이지만 해도 너무 했다..... 장마전선 탕도 아닌데 우린 요즘 영어의 표기에 오락가락 했다. 지난 5월호 논단 종합건축 李丞雨소장의 “건축사 보수교육 유감”에서 보수교육의 표기를 Repair Education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승우 소장께 사죄를 드리며 보수교육을 Retraining으로 정정합니다.